

'12. 8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 국정 협조 · 공지사항 》

-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
- 가계통신비를 아껴주는 요금제 선택방법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
-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 아직 돌아오지 못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 행정안전부
-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3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홍보만화 / 문화체육관광부
- 10인미만 사업장과 해당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 / 고용노동부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교육 무료 실시 / 보건복지부
-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합니다. / 여성가족부
-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 마련 / 국토해양부
- 수돗물의 가치! 얼마일까요? / 국토해양부
-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 통계청
- 8월22일(제389차)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 소방방재청
- 독버섯 섭취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꼭 알아두어야 할 예금보호 제도 / 예금보험공사

《 도정 협조 · 공지사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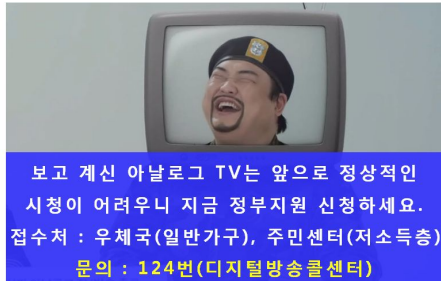
- 2012 국제농업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 2012 F1코리아그랑프리 사진공모 안내 / F1대회조직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사회복지과
- 폭염대비 노약자 행동요령 안내 / 노인장애인과
-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합시다 / 사회복지과

《 이달의 역사인물 》

- 9월의 6·25전쟁영웅 (손원일 해군 준장) / 국가보훈처
- 9월의 독립운동가 (김동수 선생) / 국가보훈처
- 9월의 호국인물 (김경손 장군) / 전쟁기념관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안내

- 현재 아날로그TV를 보유하고 안테나를 통해 직접수신하고 계시는 가구는 디지털전환이 필요하오니 지금 바로 정부지원 신청하세요.



TV 시청중에 이런 자막이 보이는 아날로그TV 시청자들은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정부지원

- 지원대상**
- ① 기초생활 수급권자
 - ② 차상위 계층 중 자활근로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③ TV수신료 면제가구 중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①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지원
 - ②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 구매시 구매보조금(10만원)지원
※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무상 지원
- 신청접수**
- 주민센터(읍·면사무소)
※ 민원24(www.minwon.go.kr),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전화(124번)로도 신청 가능

노인·장애인 및 일반가구 정부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외의 가구로서 아날로그TV를 보유하고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
- [노인·장애인 가구]**
- 디지털컨버터 1대 대여(신청시 자가부담금 2만원 납부)
※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컨버터를 배송·설치하고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를 무상으로 지원
- [일반 가구]**
- 디지털컨버터 1대 대여(신청시 자가부담금 2만원 납부)
※ 컨버터는 택배로 배송(자가설치)되며 필요시 실외안테나 설치지원 (자가부담금 3만원)
- 신청접수**
- 우체국 (우편취급국, 출장소 제외)
※ 민원24(www.minwon.go.kr), 전화(124번)로도 신청 가능

- 디지털전환 정부지원 신청·문의 : 국번 없이 124번(무료)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홍보과 ☎ 02-750-1492

가계통신비를 아껴주는 요금제 선택방법 안내

- 기존 휴대폰 요금제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표준요금제와 정액요금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MVNO 알뜰폰 도입과 단말기 자급제 시행, 선불요금제 제도개선, 유무선 결합 활성화, 특수계층 요금제 확대 등으로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요금제 센스있게 골라쓰자!

선불요금제, MVNO 알뜰폰요금제, 노인·청소년·저소득층요금제를 알고 계시나요?

선불요금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용자입니다. 인터넷은 PC를 쓰고요, 걸 때는 집 전화, 밤에는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에게 맞는 요금제가 있을까요?

이용하는 만큼만 요금이 부과되는 **선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습니다. 5천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량이 대략 68분 이하인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표준요금제

저는 음성통화 위주의 이용자입니다. 스마트폰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선불요금제를 쓰기에는 통화량이 많은 편입니다. 저에게 맞는 요금제는 무엇일까요?

음성통화 위주로 발신 통화량이 중간정도 이용자는 **표준요금제** (기본료 1만1천원 + 통화료)가 좋습니다.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 요금제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특화된 요금제가 따로 있나요?

연령대별 통화 이용 패턴에 맞게 가격을 낮춘 **노인, 청소년 요금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저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업무처리, SNS 등 휴대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저에게 맞는 요금제는 무엇일까요?

음성 통화량이 많거나 무선데이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가입자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좋습니다.

MVNO 알뜰폰요금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학생입니다. 가계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쓰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요금제보다 20% 이상 할인되는 **MVNO 알뜰폰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전화 결합요금제

가족 모두 같은 통신사의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동전화와 인터넷, 집 전화, TV 등을 묶으면 요금할인이 되는 **결합상품 요금제**를 이용해보세요.

자급 단말기로 요금제 선택을 자유롭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자가 스스로 마련하면 **요금제 선택도** 자유로워집니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급 단말기란? ① **할부무료 자기단말기** : 약정기간과 할부가 완료된 단말기 ② **중저가단말기** : 제조사, 온라인쇼핑몰, 마트에서 판매 ③ **중고단말기** : 온라인쇼핑몰, 개인간 직거래로 구입

요금제를 내 통화 스타일에 맞게

자급 단말기를 사용하나요?

① 누구나 5만4천원 요금제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면 저렴한 3만4천원 요금제로...

※3만4천원 요금제로 약정할인 받으면 월 약 2만3천원

6월 1일부터는 할부약정이 끝난 단말기, 중고단말기도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② 주로 받는 통화가 많으면 선불요금제로...

이용요금을 미리 충전하고 통화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어요.

※가입비, 기본료 없이 최저 5,000원부터

통신사를 내맘대로

③ SKT, KT, LGU+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용요금도 저렴한 MVNO(알뜰폰)도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주소창 또는 검색창에 [단말기자급제, 한국] 을 입력하세요.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와 ☎ 02-750-2554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무엇인가요?

-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년 2회** 실시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 ▶ 본 조사는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응답결과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 없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왜 참여해야 하나요?

- ▶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어요~”하는 생각은 모두 갖고 있지만, 직접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죠?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들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쉽게 참여할 수 있나요?

- ▶ ‘12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는 나이스 학생서비스의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언제부터 참여할 수 있나요?

- ▶ 학교폭력실태조사는 **8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개학 후 학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 02-2100-6322

아직 돌아오지 못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시료 채취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 DNA시료 채취 참여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13만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국가적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국군전사자의 유해는 **총 6,706구**이며, 이 중 79명의 전사자만이 신원확인이 되었습니다.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의 DNA 시료 채취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대 상** :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까지

• 참여방법

1. 직접방문 : 지역내 보건소

※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방부에서 지원합니다.

2. 전화신청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 시료채취 KIT 송부 → 유가족 자가 채취 → 우편발송

✓ 준비서류

제적등본(읍·면·동사무소 발급), 유족증(보훈처 발급), 전사통지서 중 택일

※ 전사자와 참여자간 가족관계 확인용


✓ **DNA시료 채취는 구강내 분비물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단 한번의 DNA시료 채취 참여만으로
돌아오지 못한 혈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 02-811-6513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타기 5가지 약속

1.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안전모를 쓰면 사고시 사망확률이 90% 감소!
2.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습니다.
- 과속 자전거는 과속 오토바이만큼 위험!
3.  휴대전화, DMB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력 분산으로 충돌사고 등 사고위험이 높아요!
4.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켵니다.
- 야간 자전거 사고 치사율은 낮 시간의 3배!
5.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 음주 운전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위법행위!



행정안전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보행자 안전수칙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 합니다.
 - 앞 뒤 거리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해요!
2.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맙시다.
 -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 사고의 주 원인!
3. 차량 **우회전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유의**합니다.
 - 자전거는 차도 제일 우측에서 달립니다. 우회전시 특히 주의!
4. **운전자,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지 맙시다.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는 인도로!
5.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시다.
 - 자전거 충돌사고도 차량 충돌 만큼이나 위험해요!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 02-2100-1691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3



Q.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무료로 영화가 상영되거나 야외 음악 공연이 많아지는데, 이런 무료 상영이나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가요제의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영화나 음악 등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크게 해가 되지 않거나,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정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중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기업의 후원 등 홍보의 목적이 없는 순수한 비영리의 가요제는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노래를 부르며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에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날 공원이거나 아파트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반 CD나, 영화 DVD(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구입하여 무료로 들려주거나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5백원, 천원 정도의 실비를 **감상료로 받고 영화를 상영한다면**, 이는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장소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의 무료 공연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 감상설비를 갖추고 이를 업으로 하는 감상실,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이나 전문체육시설,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카지노나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음반이나 영상을 공연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2012. 8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여름철 우리아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 1577-1255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우측보행 활성화
이제부터 우측보행입니다.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 자료제공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02-2287-6247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 구분 (단위: 원) | | 근로자 | | | | 사업주 | | | |
|---------------|------|--------|--------|--------|---------|--------|--------|--------|---------|
| | | 월보험료 | 월지원액 | 월납부액 | 연간지원액 | 월보험료 | 월지원액 | 월납부액 | 연간지원액 |
| 월100만원 | 고용보험 | 5,500 | 2,750 | 2,750 | 33,000 | 8,000 | 4,000 | 4,000 | 48,000 |
| | 국민연금 | 45,000 | 22,500 | 22,500 | 270,000 | 45,000 | 22,500 | 22,500 | 270,000 |
| 월120만원 | 고용보험 | 6,600 | 2,200 | 4,400 | 26,400 | 9,600 | 3,200 | 6,400 | 38,400 |
| | 국민연금 | 54,000 | 18,000 | 36,000 | 216,000 | 54,000 | 18,000 | 36,000 | 216,000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www.ei.go.kr)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2-6902-8019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매일 평균 256명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고 그 중 6명이 사망합니다」

“피자나 치킨 또는 야식을 배달시키면서 “조금 늦어도 좋으니 안전하게 배달해주세요” 라고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의 경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큼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운전자는 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때로는 보행자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안전하게 배달된 음식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빨리 빨리” 대신 “조금 늦어도 좋으니 안전하게 배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

- ★ 우리 식당 이름이 새겨진 오토바이로 인도주행 하면 절대 안 되요!
- ★ 헬멧 착용 꼭 하세요!
- ★ 조금 늦더라도 과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 02-6922-0963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0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02. 신청대상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셔도, 소득·재산이 감소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 연금액



1인 지급액 월 최고 91,200원, 부부 동시 지급액 월 최고 145,900원(각 72,950원)

※ 2012년 4월부터 연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94,600원, 25만원 이하

151,400원(각 75,700원)

※ 2012년 4월부터 연금액 상향 지급

04.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단독가구)/124.8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대도시 기준) |
|------|-------------------------------------|--------------|------------------------------|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
| 단독가구 | 월 121만원 이하 | 월 78만원 이하 | 3억 1,520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210.8만원 이하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124.8만원 이하 | 4억 2,752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궁금하시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bop.mw.go.kr)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129)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도움이 필요하세요?

- 보건의료분야

[의료·의약·식품정책, 건강보험, 의료비지원 등]

-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지원,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지원(바우처) 등]

- 저출산고령사회분야

[출산지원, 보육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 위기대응(365일 24시간) 상담 등

[자살예방, 긴급복지지원, 아동·노인 학대 및 실종]

“보건복지에 관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031-389-7323)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교육 무료 실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육을 해준다면서~

고~~주세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문의

02-901-1553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있는 장애인

- 장애등급 1~4급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1~6급)

교육방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내용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 시험 합격자
-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FAX접수 (FAX. 02-901-1550)

교육비 무료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 02-901-1554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안내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존 구비대상 시설 : 보건소, 구급차,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대합실,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청사, 지자체 청사

왜 공동주택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심장마비(심정지) 환자의 57.4%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내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협의하에 응급장비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누가 사용하는 응급장비인가요?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마비(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이며, 간단한 사용방법만 익히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29)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단순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2012.9.16부터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삭제, 전송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관련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조의2, 3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7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 마련

□ 추진배경

-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을 마련

□ 주요내용

- 생활 속에서 거주자가 알아야 할 냉·난방·환기·생활습관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마련

* 단열, 창문, 기밀, 난방, 냉방, 환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가전기기, 생활습관

- 에너지 절약방법에는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열·창문·기밀성능 개선방법 제시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마련

* 하절기 및 동절기 전력피크 시 대응요령도 명시

- ※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에 대한 책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통합검색에서 “50가지 에너지절약법”을 입력하거나, 국민마당-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여름철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여름철 에너지 절약 준비

- 냉방기기 구입 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선택
- 에어컨 필터 청소,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
- 에어컨 실외기를 청소하고, 근처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전기냉온수기의 온수 기능, 비데의 보온 기능, 난방용 온도조절기 등 여름에 사용하지 않는 기능 끄기



여름철 에너지 절약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
- 에어컨 사용 시 냉방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
- 냉방 시 문이나 창문을 여닫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닫아두기
- 냉방 시 조리, 세탁, 다리미질, 헤어드라이어, 오븐 사용 등 자제
-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 필요한 곳도 밝기 최소화
- 에너지 절약적인 가전기기 사용습관, 생활습관 실천하기 (방법 36~ 50)
- 여름철 전력피크(오후2시~5시)에 전기 사용 최대한 자제



(※) 여름철 전력피크 시 대응요령

여름철 오후 2시~5시 사이는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으로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예비전력이 부족해지면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다음과 같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TV, 컴퓨터 등 기타 가전기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 겨울철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겨울철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겨울철 에너지 절약 준비

- 벽, 지붕에 단열재가 파손되었거나 없는 경우, 단열재 보수·시공
- 단열성능이 낮은 창문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창문으로 교체
- 기밀하지 않은 창 및 문 주위 바람이 새는 곳에 문풍지 설치
- 창틀이나 구조체 틈새 등 바람이 새는 곳에 코킹 시공
- 난방기기 구입 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선택
- 보일러 내부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두꺼운 커튼으로 교체



겨울철 에너지 절약

- 난방온도는 20℃ 이하로 유지
- 주택의 단열 수준에 맞추어 보일러 온도조절기의 기능을 활용
- 낮에는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여오고, 밤에는 커튼을 닫아 난방에너지의 손실을 방지
- 전기히터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 담요나 카펫을 바닥에 깔아 냉기를 막고, 난방열을 오래 유지



겨울철 전력피크 시 대응요령

가정 부문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은 여름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특히 난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난방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부터는 겨울철 최대전력부하가 여름철 최대전력부하를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전력피크 시에도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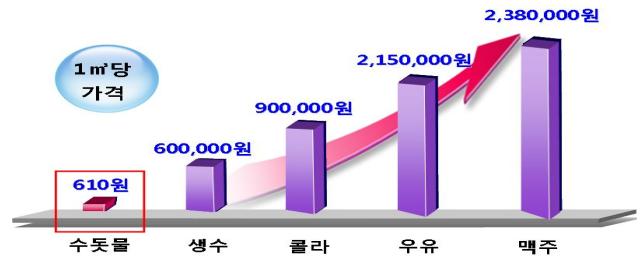
-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TV, 컴퓨터 등 기타 가전기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수돗물의 가치! 얼마일까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톤당 610원**으로 OECD 주요국가의 30% 수준에 불과한 반면, 1인당 물사용량은 **일평균 333ℓ**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물 과소비 국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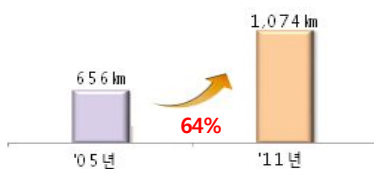
저렴하고 풍부하게 공급되는 우리나라 수돗물



물값과 타재화의 가격 비교

- 국민들이 불편없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산업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도매) 요금은 '05년 이후 7년간 인상되지 않아 물 생산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값은 수돗물 생산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나 신규 수도시설 신설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노후관 증가>



<관로사고 급증>



<단수 현장>



- “물”은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요금에 비하여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 광역상수도 요금 **1%**를 인상하면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29원**, **10%**를 인상하더라도 추가 부담액은 **290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잔값(**30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이 이용하고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수돗물, 여러분은 수돗물의 가치를 얼마나 매김하고 계시는가요?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00-8406

참고 1 물값 관련 참고 자료

□ 다른 재화와의 비교

| 구 분 | 수공 정수요금 | 전국 수도요금 | 생 수 (제주삼다수) | 콜 라 (코가콜라) | 우 유 (서울우유) | 맥 주 (카스) |
|--------------|------------|------------------|------------------------|--------------------------|-------------------------|---------------------------|
| 가 격 (원/㎥) | 394 | 610 (‘10년 기준) | 600,000 (300원/0.5ℓ) | 900,000 (1,620원/1.8ℓ) | 2,150,000 (2,150원/ℓ) | 2,380,000 (1,190/0.5ℓ) |
| 비교(배) | 0.6 | 1.0 | 984 | 1,475 | 3,525 | 3,902 |

* 자 료 원 :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2011.7월), 2010 상수도통계(환경부, 2011)

□ 다른 공공요금과의 비교

(단위 : 원)

| 구 분 | 수도요금 | 전기요금 | 연료비 | 대중교통비 | 통신요금 |
|--------|--------|--------|--------|--------|---------|
| 월 지출액 | 11,429 | 44,416 | 46,810 | 56,315 | 131,500 |
| 비 교(배) | 1.0 | 3.8 | 4.0 | 4.8 | 11.2 |

* 자 료 원 :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통계청, 2008년 기준)

□ 각국의 수도물값 비교 (주요 19개국 평균 수도요금 : 1,789원/㎥)

(단위 : 원/㎥)

| 구 분 | 한 국 | 이탈리아 | 미 국 | 일 본 | 영 국 | 프랑스 | 독일 | 덴마크 |
|-------|-----|-------|-------|-------|-------|-------|-------|-------|
| 수도요금 | 610 | 1,003 | 1,377 | 1,580 | 2,210 | 3,459 | 3,555 | 4,612 |
| 비교(배) | 1.0 | 1.6 | 2.3 | 2.6 | 3.6 | 5.7 | 5.8 | 7.6 |

* 자 료 원 : Global Water Intelligence(2011.9월호), 2010 상수도통계(환경부, 2011)

□ 수도요금이 소득 또는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 구 분 | 한 국 | 일 본 | 호 주 | 스웨덴 | 영 국 | 프랑스 | 덴마크 | 폴란드 |
|-------|-----|-----|-----|-----|-----|-----|-----|-----|
| 비 중 | 0.2 | 0.3 | 0.4 | 0.5 | 0.6 | 0.7 | 0.9 | 1.2 |
| 비교(배) | 1.0 | 1.5 | 2.0 | 2.5 | 3.0 | 3.5 | 4.5 | 6.0 |

* 자 료 원 :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OECD, 2010)

□ 각국의 1인당 물 사용량

(단위 : ℓ pcd)

| 구 분 | 한 국 | 덴마크 | 독일 | 프랑스 | 영국 | 터키 | 중국 |
|-------------|-----|-----|-----|-----|-----|-----|----|
| 1인당 물사용량 | 333 | 114 | 151 | 232 | 139 | 238 | 95 |

* 자 료 원 : Global Water Intelligence(2011.9월호), 2010 상수도통계(환경부, 2011)

※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 영국 옥스퍼드 소재의 물산업 전문 조사기관
- 물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발간 및 온·오프라인 국제 물 전문 잡지 발행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시군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전국 174,000가구내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 2012. 9.16.~10.5.(기간 중 16일)
- 조사방법 : 인터넷참여 및 조사원방문
 - ①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12.9.16~9.20)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el.survey.go.kr>)를 방문하여 직접 응답
 - ② 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목적, 조사참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안내문을 9월초에 발송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받은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 계 법

1. 응답의무 : 상기 조사는 국가지정통계이므로 제26조(실지조사)와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해 조사응답의무가 있습니다.
2. 비밀보호 : 가구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95(3861)

8월22일(제389차)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

8월22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적의 공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대피 훈련을 전국 일제히 실시합니다.

- 8월 22일 오후 2시에 민방공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전국적으로 주민이동 및 교통이 통제됩니다.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 행안부계획에 의거 일부 접경지역 주민 주민이동 및 소산 실시
- 주민여러분께서는 공습경보가 울리면 전기코드를 빼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군·소방·경찰·구급·행정차량 등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대기합니다.
- 라디오나 TV의 민방위 훈련 실황방송 청취하면서,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피소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 철저한 대비만이 위협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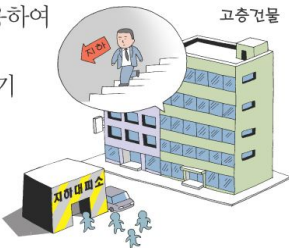
생명지키는 우리 주변 대피소 가보기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길 가에서 보행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행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해제가 발령되면...

-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평시 비상대비 물품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 | |
|----------------------|---|--|
| 비상용 생활필수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 가급적 조리과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
| 가정용 비상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
| 화생방준 대비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 |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 02-2100-5232

독버섯 섭취 주의 하세요!

- 여름철 비가 많이 온 뒤의 땅은 습기가 많아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8월부터는 산에서 쉽게 버섯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식용이 불가능한 독버섯이므로 버섯의 채취 및 섭취는 삼가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약 1,500여종의 자생 버섯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식용버섯은 송이버섯, 능이버섯, 표고버섯 등 **20여종에 불과**합니다. 그 외 대부분은 독버섯이며 식용 가능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모양이나 색깔이 유사하여 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알려진 식용, 독버섯 구별법〉

| 식용버섯 | 독버섯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 ▪ 세로로 잘 찢어지는 것 ▪ 대에 띠가 있는 것 ▪ 해충이 가해한 것 ▪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것 ▪ 냄새가 고약하고 나쁜 것 ▪ 끈적끈적한 점질이나 즙액이 있는 것 ▪ 맛이 맵거나 쓰고 자극성이 있는 것 ▪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것 ▪ 대에 띠가 없는 것 ▪ 해충이 가해하지 않은 것 ▪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는 것 ▪ 지나 지나 들기름을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 |



- 독버섯을 먹게 되면 30분에서 12시간 안에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독 증상은 버섯 종류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두통, 구토, 발진,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독버섯 섭취 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119**에 신고해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섭취하고 남은 버섯이나 동종 버섯을 가지고 가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방법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 (www.kfda.go.kr) 내 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295번 알기쉬운 독초, 독버섯 핸드북 또는 우리 청 식중독예방 대국민홍보사이트 (www.kfda.go.kr.fm) 내 식중독예방 홍보-기타 교육,홍보자료-알기쉬운 독초, 독버섯 핸드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 043-719-2113

꼭 알아두어야 할 예금보호 제도

1 예금보험제도란?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혹은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예금 보호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3 보호금융상품

예금, 적금, 부금 등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보호하며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등도 보호합니다.

한편, 후순위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

2012국제농업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박람회 개요

- 주 제 :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
- 기 간 : 2012. 10. 5 ~ 10. 29/25일간
- 장소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나주시 산포면 소재)
- 주최/주관 : 전라남도 /(재)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 규 모 : 27개국, 415개 국내·외 기업, 관람객 105만명

□ 박람회장 구성

| | |
|-----------|---|
| 생명농업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농업관(농업의 가치, 생명농업, 컬러푸드) · 농업미래관(IT·BT농업, 디지털가든, 종자캡슐) · 농업예술관(산업곤충 전시·체험, 오감정원, 식물원) · 유기농업관(유기농업의 기술, 성과 등 홍보의 장) |
| 농식품·산업의 장 | · 농산물·농기계 전시판매관, 친환경축산관 |
| 국제교류의 장 | · 기업홍보관, 국제회의장 |
| 농업어메니티의 장 | · 에듀팜, 농작물 수확체험장 |

□ 입장권 예매 안내

- 예매기간 : 2012. 5. 1 ~ 9. 30
- ※ 사전예매 시 약 30%할인(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 예매방법 :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

자료제공 : (재)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사무국 기획부 ☎ 061-330-2616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 사진공모 안내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인 F1 코리아그랑프리 소재로 하여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 동안 F1대회 관련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모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내용** :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 기간(2012. 10. 12~10.14) F1대회를 소재로 촬영된 디지털 사진
 - F1경주장면 등 스피드를 표현한 장면
 - F1머신의 경주장면과 관람객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장면
 - F1대회 기간중 경주장내 이모저모
- **공모기간** : 2012. 10. 15 ~ 10. 25
- **응모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1인당 2점 이내)
- **응모방법** : F1조직위 공식메일(f1koreangp@nate.com)로 제출
- **수상작 발표** : **2012. 11. 15**
- **시상내용** : 총 **19점**(F1대회조직위원장 상장 및 상금)

| 구 분 | 계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입 선 |
|---------|---------|-------|-------|------|------|
| 작 품 수 | 19점 | 1 | 2 | 6 | 10 |
| 시상금(점당) | 1,0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만원 |

- **기타 문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6층
 - 전화/메일 : 061-288-5145, rmk81@korea.kr
 - ※ 상세자료는 전라남도 F1조직위 홈페이지(www.koreangp.kr) 참조

자료제공 : F1대회조직위원회 ☎ 061-288-51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 부양거부·기피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었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되었으니 아래 대상자는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지생보 심의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 확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 가출, 행불 등인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수급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써 부양의무자가 이혼한 부모는 모인 경우
- 아동·장애인시설 등에 입·퇴소 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이혼, 폭력, 방임, 유기, 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거부·기피 주장시 제출서류 간소화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자료를 제출받아 신청접수 처리
※ 기본자료 : 소명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최근 1년간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자료제공 :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061-286-5732

‘12년 폭염대비 노약자 행동요령 안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독거노인 등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 예견시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합니다.

▣ 폭염대비 노약자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은】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증상을 체크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 오후 12시 ~ 오후 5시 사이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 물을 많이 마시고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 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지자체별 지정·운영되는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 무더위 쉼터 : 읍면동주민센터, 경로당, 금융기관, 종교시설, 공단 지사 등
- 폭염으로 인한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응급의료 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조치하세요.

☎ 비상연락처 : 119, 1661-2129

■ 폭염 관련 질환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 폭염 관련 질환 | 증상 | 응급조치 |
|----------|---|---|
| 열경련 | 근육경련, 피로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 이온음료 섭취 |
| 열부종 |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
| 열실신 | 일시적 의식소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평한 곳에 눕힘 |
| 일사병 | 두통,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피부가 차고 젖어있으며 체온은 크게 변동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 심할 경우는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 |
| 열사병 | 뜨겁고 건조한 피부 (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고 환자를 물에 담그거나 적서 체온을 식히도록 함 |

- **폭염관련 질환중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입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발견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체온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폭염특보 발령기준

- ◆ 주의보 :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 경 보 :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 폭염특보 발표시 지역별 도시고온건강지수(매우위험, 위험, 대비, 없음) 제공
- ※ 도시고온건강지수 : 도시(지역)별로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정도를 4단계로 구분 제공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리플렛】

**이런 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갑작스런 더위



높은 기온



악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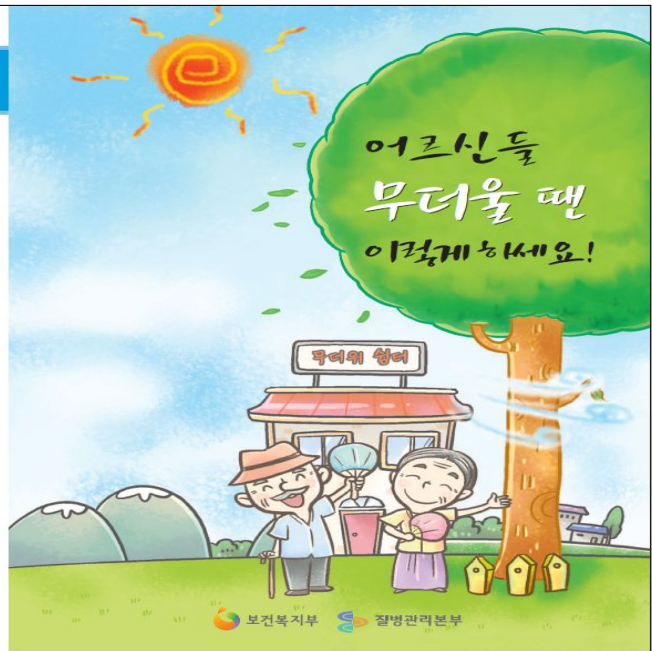


높은 습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

- 건강상담과 복지생활 지원요청등 도움이 필요할때는
☎ 129(보건복지콜센터)와
☎ 1661-2129(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하세요.
-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서는
☎ 119(중앙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 우리 동네 무더위 확인은
☎ 131(기상청 날씨예보)에 문의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건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무더울땐 이렇게 건강을 챙기세요.

-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야외작업은 자제하세요.
※ 특히, 한낮(오후 12~5시)에는 외출이나
논·밭·밭·비닐하우스 작업 등도 삼가세요.
※ 부득이 외출을 하실 때는 햇볕에
채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시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드세요.
-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있는 커피 등 음료와 술은 드시지 마세요.
-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를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주세요.
- 우리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무더위 쉼터」를 찾으세요
※ 가까운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알려드려요.



왜 무더위에 어르신들은 위험할까요?



- 어르신들은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져서 체온조절이나
탈수감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에는 무더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만성질환 :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졸중 등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일단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되도록 에어컨이 작동되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입은 옷은 벗고,
노출된 피부에는 물을 뿌리면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가능한 몸을 빨리 식히면서 구급대를 불러 도움을 받습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061-286-5823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 합시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음식물 변질, 식중독균의 다량 증식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개인위생 및 음식물 보관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이란?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 발생현황

-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6월~9월)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식중독 원인균

- 주된 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으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중독균 특성 | 살모넬라 | 황색포도상구균 | 장염비브리오균 |
|------------|--------------------------------|-------------------------------|---|
| 원인식품 | 식육, 난류, 유제품 등 | 도시락, 곡류가공품 등 | 생선회, 어패류, 초밥 등 |
| 주요증상 | 섭취 후 24시간 전후 복통, 설사, 발열, 구토 | 섭취 후 3시간 전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 섭취 후 10~18시간 내에 급성위장염, 복통, 설사, 구토 등 |
| 예방방법 | 가열, 조리, 저온보관 | 화농성 질환자 조리금지, 개인위생 철저 | 가열, 조리기구 소독, 냉장 보관 |

식중독 발생원인

-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함으로서 발생합니다.
- 오염된 식품원료, 기구, 용기 및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 손 씻기 소홀 등 개인 위생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식중독 예방요령

-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도시락, 김밥 등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음식물은 70℃이상으로 가열·조리 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 하십시오.
- 조리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보관 하십시오.
- 보관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 조리한 식품과 날 식품이 접촉되면 조리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 등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식사 전에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보건소(보건지소)에 신고하십시오.
- 보건소 역학조사반의 지시에 따르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자료제공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53

9월의 6·25전쟁영웅 손원일(孫元一) 해군 중장

(1909. 5. 5. ~1980. 2. 15)

◆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



국가보훈처는 해군중장 손원일 (1909.5.5~1980.2.15)을 9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손원일 해군 중장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유공자 손정도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5년 11월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단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이 정식 발족됨에 따라 초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 해군참모총장직을 맡아 해군 운영 원칙, 간부양성, 전투함 구입 등 대한해군의 기초를 다져 나갔다. 1948년 10월 해군은 여수 순천 사건 진압에 투입되었는데 이에 해병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9년 4월 해병대를 창설했다.

1950년 6월25일 전쟁발발 첫날부터 북한군의 해상침투를 막고 유엔 해군과 더불어 동서남해에서 재해권을 확보한 손원일 제독은 해군총참모장으로서 6·25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개전초기의 육계해전과 대한해협전투 승리는 물론 1950년 9월 15일 수도탈환작전을 위한 인천상륙작전에서 작전계획과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공헌하였다. 또한 도솔산지구 전투와 동·서해안 철수작전, 동서남해 해상 봉쇄작전 등 해상은 물론 육상의 주요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같은 공적으로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해군 중장은 1953년 4월 금성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9월의 독립운동가 김동수(金東洙) 선생

(1916. 12. 6 ~ 1982. 2. 20)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부대장으로 적 후방 교란작전을 전개하고, 한국광복군 제5지대 부지대장으로 병력모집과 선전활동을 전개한 김동수 선생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강화에 세거한 양반가문으로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 신앙하였다. 8세 때인 1923년, 선생의 부친은 자유로운 선교와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건너갔다. 선생은 상해에서 민족교육의 상징인 인성학교를 다니며 민족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었고, 화랑사 등 각종 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인성학교와 공시중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1월, 제1차 상해사변 이후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1934년경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선생은 윤봉길의거 이후 독립전쟁의 군사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반에 입학하여 군사학을 연마하는 한편, 김구가 조직한 특무대에 들어가 반일운동에 참여하였다.

낙양분교를 졸업한 선생은 1936년 중국군의 장교로 복무하였다. 다음 해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선생은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남경에 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선생은 피난 중의 임시정부 대가족과 김구 등 요인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시정부가 중경에 도착한 이후 선생은 나월환 등 한인 청년들과 함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결성하였다. 전지공작대는 전방인 서안으로 가서 초모 및 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때 초모된 한인 청년들은 후일 한국광복군의 기간이 되었다.

1940년 9월 17일 마침내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국군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1941년 1월 선생이 소속되어 활동하던 전지공작대는 혁명역량의 집중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광복군 제5지대로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선생은 신설된 광복군 제5지대의 부지대장 겸 제1구대장이 되어 초모, 선전, 정보수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아울러 새로이 초모한 대원들에 대해서는 중국군관학교에 한국청년반을 특설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 선생은 1945년 4월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산하에 조직된 토교대 제3대 대장을 역임하였다.

일종의 보충대라고 할 수 있는 토교대 임무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선생은 중경에서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후 선생은 한국독립당 감찰위원,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동북특파원으로 교포의 생명, 재산의 보호, 안전한 귀국을 주선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9월의 호국인물 김경손 장군

(? ~ 1251년)

전쟁기념관은 고려시대에 정주·귀주 등지에서 몽고군을 격퇴한 김경손(金慶孫) 장군을 2012년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김경손 장군은 평장사(고려시대 정2품 관직) 김태서의 아들로 태어나 성품이 온화하고 관대하며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대담하면서도 지략이 있었다.

1231(고종 18)년 정주(靜州 : 現 평안북도 의주군) 분도장군(分道將軍)이 되었을 때 몽고군이 압록강을 건너 개전 40여일 만에 정주성에 이르자 장군은 결사대 12명을 이끌고 성문을 나서 분전, 격퇴했다.

같은 해 9월 3일, 몽고 대병력이 귀주성으로 밀어닥치자 김경손 장군은 결사대와 함께 성 밖으로 나아가 선두에 있던 적장을 쏘아 넘어뜨린 것을 시작으로 4~5차례에 걸쳐 적진을 타격했다. 장군은 몽고군이 혼란에 빠지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해 일제히 공격하자 몽고군은 그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퇴각했다.

이후에도 서북지방의 군사적 요충지인 귀주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몽고군은 4개월에 걸쳐 끊임없이 공격해 왔으나 김경손 장군과 고려군의 불굴의 항쟁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70에 가까운 몽고의 한 장수가 '내가 소년시절부터 수십 년 간 전투에 참전했지만 이처럼 맹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은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감탄했을 만큼 장군과 고려군은 용맹했다.

김 장군은 몽고군을 물리친 전공을 인정받아 대장군으로 승진했다. 1237년(고종24) 전라도지휘사로 있을 때는 이연년의 난을 진압하여 그 공으로 추밀원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1249년, 장군의 명망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꺼린 실권자 최항(崔沆)의 시기를 받아 백령도로 유배당했고 2년 후인 1251년, 최항이 정적을 제거할 때 함께 억울한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2012년 9월 6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관단체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